국가데이터처 보 도 설 명 자 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6.10.20.(화)

인구동향조사의 혼인과 출생 통계 분석시 유의가 필요합니다.

< 언론 보도내용 >

□ 2026.10.20. 이데일리는 최근의 출생아 수 증가와 관련하여 「3~9년차 부부 출산율 12% 증가... 코로나 혼인 공백기 메웠다」 등 기사에서

○ “강한 반등세를 이끈 것은 결혼 3~9년차 부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. 부부 100쌍당 출생아는 12% 가까이 늘었다”고 하면서 “부부 수 효과는 -265명으로 사실상 없었고, 증가분은 모두 부부당 출산 증가(1만 5175명)에서 나왔다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< 정부 입장 >

□ 기사에 사용한 혼인 연차별 부부 출산율은 인구동향조사의 출산율, 결혼생활기간별 출생아 수 통계와는 개념이 다름을 설명드립니다.

□ 인구동향조사의 합계출산율은 여자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의미하며 여자의 인구를 분모로 하고 있으나, 기사에서는 혼인 연차별 부부의 수를 분모로 하는 출산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

○ 또한, 기사의 출산율은 분모는 혼인신고일, 분자는 실제결혼생활 시작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서로 상이하고, 부부 수 산출시 이혼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.

□ 「결혼생활기간별 출생아 수*」 공식통계는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(KOSIS)을 통해 매년 제공하고 있습니다.

* 실제결혼생활 시작일과 출생일 사이 기간에 따른 출생아 수

담당 부서	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	책임자	과 장	박현정 (042-481-2250)
		담당자	사무관	이수복 (042-481-2258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